

## 고창군, 이장단연합회-체류형교육생 간담회



고창군이 지역 이장단과 예비 귀농귀촌인들간의 대화 자리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8일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고창군이장단연합회와 체류형교육생간의 간담회를 열고서 귀농귀촌 정착민과의 주민갈등 완화와 정착을 위한 주택과 농지정보 제공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체류형창업센터는 고창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3월부터 11월까지 체류시설에 거주하며 영농교육과 지역탐색 등을 통해 고창 정착을 준비하는 연수기관이며 현재 22세대가 입교해 토양관리 등 영농기술교육과 지역 알아가기 현장학습을 통해 정착을 준비하고 있다.

군에서는 이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14개 읍면 이장단협의회 회장들과 체류형 교육생과의 간담회를 마련하여 농지 및 주택 구입 정보 교류 등 정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현행열 소장은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창=안병철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3-04-20 12면

<http://sjbnews.com/777964>